역경 속에 '어린이 포교' 씨앗 뿌렸으나 느린 걸음

어린이 법회 어제와 오늘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주역이자 불교계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인공이다. 이를 인식한 선구자들을 오래 전부터 개별적으로 원력을 세우고 어린이 포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불교사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시도한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다. 개항 이후 물밀 듯 밀려들어온 개신교가 주일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린이 선교에 성과를 올리자, 한국불교계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한국불교계에서는 1923년 중앙포교소인 각황사(現 조계사)가 '각황일요불교학교'를 개설한 것이 최초의 어린이 일요법회라고 알려져 있다. 1928년에는 용성 스님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대각일요학교'를 설립했다. 이후 전국 사찰과 포교소에는 일요불교학교가 봇물처럼 개설됐으며, 그 수가 4천여 개에 달했다.

하지만, 해방 후 6.25동란을 거치면서 일요불교학교는 1960년대까지 자취를 감춘다. 1960년대 어린이 포교의 선구자인 운문 스님이 목포 정안사를 시작으로 마포 석불사, 종로 대각사 등 15개 사찰의 어린이 법회 창립을 견인했다. 1966년에는 불교 어린이 교화를 위해 안병호 씨가 재정 지원을 하고 운문·석주·현보 스님 등이 뜻을 모아 소년교화연합회를 출범한다. 당시 불교계의 유일한 어린이 청소년 단체였던 소년교화연합회는 1969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포괄적인 포교·교화 사업을 진행했다. 여기에 1975년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이 어린이 불교학교를 시작하면서 한국 불교계의 어린이 포교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1980년대 중후반은 어린이법회의 전성기였다. 1970년대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와 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청년불자들이 1980년대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로 대거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후 어린이법회 교재 '연꽃'이 창간되고, 어린이 교사대학이 창설되면서 어린이법회는 더욱 체계화·전문화돼 1980년대 말에는 전국 600여 사찰로 확대됐으며 참여 어린이 수도 5~6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사찰과 스님들의 무관심, 지도교사 양성 소홀, 출판·음악 등 문화콘텐츠 개발의 관심 부족 등 총체적 부실이 어린이 포교의 발목을 잡았다. 또 불교 내부문제로 인해 시대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어린이법회는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이런 가운데 2005년 故 지관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천명했고, 이에 발맞춰 당시 포교원은 어린이포교단체협의회 조직, 어린이청소년위원회 구성 등 어린이포교·법회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이후 포교원은 2011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11곳의 어린이·청소년전법중심도량을 선정해 해당사찰에는 법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구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총무원은 주지인사고과제를 도입하면서 지난해부터 어린이법회 운영 사찰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다양한 포교 지침서와 교안들도 내놨다. 포교원은 2007년 어린이포교용 홈페이지 '키즈붓다'를 개통한데 이어 2008년 어린이법회 전용 법요집과 의식곡집 CD를 제작해 일선 사찰에 배포했다. 또 '부처님 일대기'와 '삼국유사' 등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급하는가 하면, 법회용 영어교재 '헬로 달마스쿨'을 책과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해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최근 이 같은 노력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는 불교스카우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과 연계해 어린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어린이 법회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법회를 통한 불교스카우트·국제청소년 활동은 참여만으로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인정돼 향후 대학입시 등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천태종과 진각종에서도 어린이 포교를 위한 법회를 각 지부 사찰과 심인당에서 운영 중이다. 두 종단 모두 중앙 중심의 행정체계를 가진 만큼 일률적인 법회가 이뤄지고 있다.

천태종은 전국 160곳 사찰 중 44곳 사찰에서 매주 일요일 어린이 법회를 진행한다. 천태종 어린이 포교를 이끄는 곳은 총무원 교무부 산하 단체인 '천태종 연리회'다. 각 사찰 주지 스님과 신도회 간부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 지도교사들의 모임인 연리회는 1987년 '꿈나무회'로 창립돼 현재 150여명의 연리회원들이 지역 어린이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진각종의 경우 전국 심인당 120곳 중 약 80여 곳이 어린이 법회 '자성학교'를 운영 중이다. 자성학교에는 자성동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있다. 진각종은 청년회원과 교도의 자녀 등 자원봉사자로 교사들을 모집해 체계적으로 교육시킨다.

진각종은 또한 스포츠를 통해 자성동이 포교에 적극적인 것도 다른 종단과 차별화된 점이다. 통리원장배 '풋살대회'가 대표적이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풋살대회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라 경주 포항 등 7개 교구에서 15개 풋살팀 참여해 1박2일간 경기를 치른다, 이중 경산지역 심인당은 유치원과 연계해 풋살팀을 조직해 상시 운영중이다.

김주일, 신중일 기자

1923년 각황사서 첫 어린이법회
6.25 동란지나 1970년대 재시작
80년대 성과보여… 90년대 침체
조계종 정책 쏟아내며 증가 추세
천태종·진각종도 자체 법회 운영

1994년 문을 연 화성 신흥사의 어린이 법당. 신흥사는 주지 성일 스님의 원력으로 1970년대부터 어린이 학교를 개설하는 등 어린이 포교의 산실로 자리하고 있다.

■ 조계종 어린이 포교 전법 도량 현황

교구	사찰	주지
서울 경기	조계사	도문
	관음사	종하
	인천불교회관	일지
	영화사	평중
	금정사	명훈
	화계사	수암
	금장사	
	개운사	태원
	용담사	묘정
	옥천암	정경
	백운암(상도선원)	미산
	봉은사	진화
	법왕사	계성
	흥국사	대오
	비로자나국제선원	자우
	무진법장사	법장
	국제선센터	탄옹
	금강선원	혜거
	도선사	혜자
	봉국사	덕현
	세광사	종율
	진관사	계호
	정각사	정엄
	금륜사	본각
	보각사	관정
	신흥사	성일
	수원사	성관
	용화사	덕선
	청련암	도문
	영월암	보문
	대각포교원	정호
	청계사	성행
	회룡사	성견
	육지장사	태형
	보리사	탄공
	여래사	각현
	구룡사	본사직할포교소
	약사사	법정
	봉영사	보관
	불광사	대각회사찰
	동원정사	송묵
	금강정사	원명
	기원정사	효공
	보문선원	보연
	한마음선원	혜원
강원	지장선원	도성
	낙산사 포교당(무산사)	도관
	신흥사 직할포교당(원각사)	본사직할포교소
	극락사	자용
	삼화사	원명
	관음사	미임명
	백운사	법안
충청	광제사	경원
	석림사	성공
	세원사	정운
	영각사	청운
	서광사	도신
	원각사	대혜
	자운사	지운
	한암사	원철
	용화사(청주)	각연
	용화사(대전)	영진
경북	관운사	지산
	화성사	종묵
	동화사 직할포교당(보현사)	본사직할포교소
	봉림사	응산
	수미정사	본연
	동화사	성문
	선재정사	중안
	분황사	종우
	영전사	해득
	청량사	지현
	대관음사	성파
	덕숭사	자도
경남	보각사	관정
	대광사	탄경
	산청포교당	설진
	보현암	호탄
	두타사	자용
	영화사	명준
	남해포교당(법흥사)	해문
	광명사	무아
	보림사	법수
	성주사 룸비니유치원	원정
	여여선원	정여
	여여정사	
	영주암	범산
	월봉사	윤균
	금화사	매물
	마산포교당(정법사)	지태
	홍법사	법미
	용궁사	정무
	정토사	주지 임기만료
	창녕포교당	성구
	해남사	만초
	구룡사	신공
	미타선원	하림
전라	금산사 직할포교당(전북불교회관)	본사직할포교소
	관음사	덕림
	관통사	석연
	신흥사	법일
	성원사	정공
	원각사	도요
	선덕사	응묵
	관음사	지현
	향적사	법일
	불탑사	일현
	봉림사	일경
	성불암	성운
	참좋은우리절	회일
	홍선사	정환
제주	약천사	선조

친절한 지도법사 어린이 포교 지침서

동련·천태종·진각종·한마음선원 매월 지도서 펴내

어린이를 위한 불교 포교지로는 사단법인 동련에서 발행하는 〈연꽃〉, 천태종에서 발간하는 〈법화꽃〉, 진각종의 〈자성동이〉, 한마음선원의 어린이저널 〈마음꽃〉 네 가지가 있다.

월간 〈연꽃〉지는 1997년부터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양한 주제로 각 주마다 법회를 할 수 있도록 지면을 구성했다.

불교동화와 '이달의 찬불가' '틀린그림찾기' 등의 컨텐츠와 한자공부를 할 수 있는 '연꽃서당' 코너도 마련됐다. 〈연꽃〉을 자비로 발행, 전국 600여 군데 어린이법회에 무료로 발송하고 있다.

천태종은 2002년 명예기자단을 창단하고 어린이 포교지 〈법화꽃〉을 발행하고 있다. 〈법화꽃〉은 매월 60여개 사찰 30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무료 배포돼 어린이 법회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법화꽃〉은 어린이들이 매주 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불교 공부를 할 수 있게 네 주 분량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매주 마다 주제를 달리해 '법문으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를 싣고 있으며 불교동화, 우리나라 역사, 역대 고승들의 이야기 등도 삽화와 함께 읽기 쉽게 수록해 놓았다. 또 만화를 통해 불교에 대한 어린이들의 궁금증들을 자세히 풀어준다. 이외에도 천태종 연리회는 불교 교리와 어린이 지도법 등이 들어있는 지도교사들의 포교 지침서 〈연리〉도 〈법화꽃〉지와 함께 매월 발행하고 있다.

진각종은 2001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잡지 〈자성동이〉를 발행하고 전국 70여 개 자성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자성동이〉는 불교 진각종에 대한 역사와 불교교리, 어린이 법회에 해당하는 전국 자성학교 탐방,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리퀴즈, 십자말 풀이, 문화재 이야기, 어린이가 직접 쓴 수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마음선원은 2012년 11월 월간 어린이저널 〈마음꽃〉을 창간했다. 30여 페이지로 구성된 마음꽃은 △귀 기울여 들어보니 큰스님 말씀 △응답하라, 너울샘 △아무나 쓰는 이야기 △ 내 마음의 물뿌리개 △Tea With Chong Go Sunim △생각쟁이들의 마음상자 등 어린이들이 직접 쓰고 그리는 코너를 비롯해 이메일로 고민을 상담하고 답변을 듣는 다양한 컨텐츠들로 구성됐다.

불교계에서 발간 중인 어린이 포교 지도서. 왼쪽부터 동련의 '연꽃', 천태종의 '법화꽃', 한마음선원의 '마음꽃', 진각종의 '자성동이'.

한마음저널측은 "불교 상식을 전하기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보편성을 알리는데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누구나 신청하면 구독할 수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부처님 오신날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석도선

승정원장 석벽봉 고 문 석암두 원로원원장 석법령

원로위원 석월타 원로위원 석지관 원로위원 석대원 원로위원 석일장
원로위원 석무송 원로위원 석혜암 원로위원 석화담 원로위원 석일우

호법원장 석대원 의전원장 석의담 교육원장 석남산 포교원장 석보광
기획원장 석일두 총무원장 석도선 비구니회장 석혜담 연수원장 석대공
문화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법혜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강 서울중앙종무원장 석설정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원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경기중앙종무원장 석재현
아포중앙종무원장 석혜천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전북중앙종무원장 석덕진 광주중앙종무원장 석아도 충남중앙종무원장 석문공
안산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제주중앙종무원장 석경만 인천중앙종무원장 석지일
전남중앙종무원장 석청우

총무부장 석도흥 교육부장 석정허 사회부장 석청암 호법부장 석성보
포교부장 석도명 교무부장 석보현 비구니부장 석용정 문화부장 석도명
의전부장 석성담 중앙포교부장 석효성

문화국장 석민경 사서국장 석성덕 사서특보 석성만 기획국장 석성각
사회국장 석원각 종무국장 석보각 연수국장 석함월 비구니국장 석지현
의료봉사국장 석법천 포교국장 석성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창종주 총무원장 석도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심)
총 무 심진화(차영란)
임 원 대도심(어월순)
임 원 법화심(김막두)

■ 총무원포교국장
포교국장 석지명
포교국장 석법성
포교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공
포교국장 석태허

종립예술원 원장 묘 각(이재인) 종립예술원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 법사승단임원

경남원장 도혜	대구국장 혜련	울산원장 법광	재무국장 덕운
충남원장 보인	종무국장 혜명	경북원장 성호	국제국장 도원
포항원장 명성	부산국장 혜성	충북부장 상학	청도국장 지천
대전부장 정민	울산국장 상학	경기부장 덕산	포항국장 득원
전남부장 혜명	구미국장 혜진	강원부장 성월	화순국장 보정
재무부장 자운	포교국장 청운		

■ 각 종무원 국장

사업국장 석민허	연구국장 석경담	역경국장 석청허	홍보국장 석동운
복지국장 석용운	의식국장 석운담	교화국장 석지허	지도국장 석청도
관리국장 석지도	조직국장 석견성	조사국장 석담월	호계국장 석원호
규정국장 석성공	사정국장 석도운	감찰국장 석성도	재무국장 석노담
총무국장 석원경	의전국장 석운경		

■ 총 본 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 무 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